



시민 정신

정병모/자유기고가

요즘처럼 시민(市民)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때도 없을 것이다.

——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듣다보니 국민이라는 말은 그 만큼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 생활의 중심인 국민은 뒤로 물러서고 사회 생활의 주체인 시민이 앞으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시민이란 단순히 얘기하면 시골 사람이 아닌 도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뜻만은 아니다.

프랑스어로 시민이라는 말은 '시투아앵(citoyen)'으로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거부 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은 억압에 대한 거부와 자존과 계몽의 역사 단계를 거쳐서 태어난 것이다. 더욱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시민은 '깨어 있는 자'라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골 사람이나 도시 사람을 가릴 수 없을 것이다.

백 사람 중 아흔 아홉 사람이 '예스'라 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권위에 주눅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동에 놀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시민 정신인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세계화니, 글로벌화니 하면서 애쓰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시민 정신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인으로서의 마인드와 넓은 안목(眼目) 그리고 외국어 구사 능력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문화 수준이라든가 행동 양식, 도덕 관념 그리고 그 안에서 세계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윤리관에 익숙해야

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하나의 유럽을 탄탄하게 세우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어 교육에 힘을 쏟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일체의 상징인 화폐의 통합을 거의 마무리 지어가고 있다.

'지구의 저 반대 쪽에는 무엇이 존재하며,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를 끊임없이 탐구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창출하려는 유럽, 그들의 내일이 참창하게만 느껴진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아이, 우리 집, 우리 가문(家門) 등 '나' 중심의 이기주의적 문화와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깊은데 말이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와같은 보수적 전통주의에서 벗어나려는 개혁적, 자기혁신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즈음이다.

시민 사회란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창의성 그리고 적극성이 뒷받침되어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함께 생활한다면 새로운 규범과 풍속이 생성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취미·의상·음악 등 생활 양식이 비슷한 류(流)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민 정신이고, 글로벌 커뮤니티이며,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땀흘리며 성과를 이루어 낸다면 글로벌 커뮤니티의 멤버에 부응하는 휴먼스타일이 형성될 것이다.

흘쩍 떠나가는 새 천년의 첫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채찍비람이라도 일으켜야 할 것이다.

